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새가족 등록 : 임병진, 조예스터, 임예우
2. 오늘 낮예배 후에 연말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낮예배 후에 연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2월 24일(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없습니다. 단, 저녁 7시 30분부터 '성탄전야축하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와 기관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담당은 오진석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성탄축하예배입니다.
6. 교우소식 : 신경미 권사님 가정이 지난 주 15일(금)에 호평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영 석 형제가 내일 군에 입대를 합니다. 관심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31일
예배기도(오전)		김운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이영선 집사	성탄축하예배	송구영신예배
주일식사담당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주사랑목장(12/9)	에덴목장(12/16)	갈렘목장(12/23)	둘로스목장(12/30)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18번(구주강림) 다같이
*경배찬송	37장(통 3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1장(통 460장) 다같이
대표기도	권용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눅 17-11-1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내 삶에도 기적을 배푸소서'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70장 (통 455장)	다같이
기도	이영선 집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엡 4:25-30	다같이
말씀선포	'그이웃과 더불어'	허영전도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18장(통 369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6:1-15 '오병이어'(1)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느 1:6-11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3)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60:1-12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1)-(5)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제설작업’

요즘 일기예보는 정말 잘 맞다. 지난 여름 하도 욕을 먹어서일까, 언제쯤 눈이 내린대거나 한파가 닥칠 것이라고 예보하면 거의 틀어맞았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밤 다음 날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대로 이른 새벽부터 때맞춰 눈이 내렸다. 교회카페 창문을 통해 사선으로 내리는 눈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카페 앞 테라스도, 더 넓은 교회마당도, 앞산도 뒷산도 온통 눈 세상으로 변했다. 하얗고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한참이나 구경했다. 금세 몸은 추위에 살얼었다. 눈 녹듯 녹이고 싶어졌다. 얼른 교회 본당으로 달려가 열풍기를 켰다. 온기가 있으니 살만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다시 나왔다. 내린 눈 때문이다.

보는 눈이야 낭만이라고 하겠지만, 내린 눈이야 골칫덩어리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우들이 들어 닥칠 텐데. 안전한 주차며 보행을 위해서는 교회 주변 제설작업이 필수다. 미끄러운 눈길과 혹한의 추위를 뚫고 달려올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급해졌다. 눈 치우는 도구인 눈삽(낙가래)을 들고 분주히 교회마당을 오갔다. 속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며 치워 보지만, 쌓이고 내리는 눈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예배 준비 때문에 대충 지나다니는 길만 치우고는 언 손을 팔짱에다 끼운 채 다시 본당으로 갔다. 이미 켜 놓 열풍기의 온기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빨강게 달구어진 열선을 따라 내 뿜는 열기는 언 손과 몸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한 겨울에 누리는 호사다.

이윽고 한 분, 두 분 교우들이 들어 왔다. 교회 안이야 데워진 온기로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마당은 쌓이는 눈으로 인해 보행 그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일까 남자 집사님들은 기도를 마치고 무섭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누구랄 것도 없이 눈삽이나 마당 빗자루를 들고서는 제설작업을 한다. 화답이라도 하듯, 여자 집사님들이 따뜻한 차로 서비스를 한다. 살갑고도 다정한 모습이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삶의 존재들이 모여 커다랗고 특별한 하모니로 완성된다. 이제 잠시 후면 드러질 예배를 통한 은혜가 하늘문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지만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다.

Written by 허영진